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일들

(마 28:1-15)

예수님의 장례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황급히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 큰 부와 명성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드렸고,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자칫 부와 명예가 일시에 무너져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 예수님을 찾아 온 여인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챙겨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은 이들은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아닌, 매우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 놓은 비범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다시 잘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이들 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2-3절). 그리고 이어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5-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것이므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9-10절).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부르셨던 곳으로 첫 신앙의 자리요, 부름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며, 첫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에는 믿음의 여인들뿐 아니라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경비병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로마 경비병들은 놀란 반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것에 대해 책망 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대제사장들에게 이를 보고하려 갑니다. 그런데 책망은커녕 대제사장은 큰 돈을 주며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12-14절). 결국 로마 경비병들은 돈 몇 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영광을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믿음의 여인들과 로마 경비병들은 똑같은 사건을 목격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까지도 당해 주신 주님,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찌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동시에 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Works at the First Day after the Sabbath

(Matt. 28:1-15)

Jesus' funeral was held in a great haste before the start of the Sabbath Day. Those who played the greatest role of holding Jesus' funeral were Joseph from Arimathea and Nicodemus. Both of them were the members of Sanhedrin Council, had a wealth and reputation. Joseph from Arimathea gave to Jesus Christ a new tomb that he wanted to be buried if he died. Nicodemus brought and put myrrh and aloe on Jesus' body. Their actions were very dangerous because this behavior could have nearly destroyed their wealth and reputation.

On the first day after the Sabbath, What had happened in the tomb of Jesus Christ?

1. Women who went to visit Jesus

On the first day after the Sabbath, there were a few women who came to look at the tomb and to take care of Jesus' body but not Peter, Jacob, and John. Like this, it is said that the Christianity is an extraordinary history that was made in the midst of God's grace by the common people.

Women, they thought, went to the tomb just to put Jesus' body in order, but there happened a trouble scene before them (vv. 2-3). And then, It was told a voice of the angels (vv. 5-7). It means that Jesus has risen from the dead as Jesus himself said, and Jesus would first of all go to Galilee and stay there. Accordingly, it also indicates that women should quickly go to his disciples and let them go to Galilee and see Jesus 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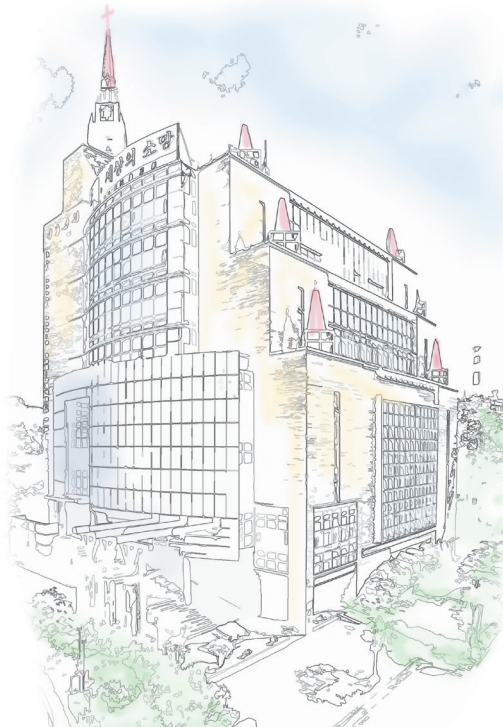
Incidentally, on the way to his disciples, women suddenly met Jesus (vv. 9-10). After Jesus resurrected, they became the first eyewitnesses.

Why did Jesus want to meet his disciples, of all people in Galilee? Because Galilee was the place where Jesus started his mission, and the first place of faith, calling, dedication, and the first love where he met and called his disciples.

2. The Roman guards who watched the tomb

On the scene where Jesus resurrected, there were not only faithful women but also the Roman guards who guarded the tomb together. While the Roman guards were surprised, they were afraid of being reproached for their failure of keeping guard over the tomb, and they went to the chief priest to report it. Instead of reproaching, the high priest gave a large sum of money to them and let them tell a lie of which the Jesus' body was stolen (vv.12-14). Consequently, the Roman guards sold the eyewitness glory of Jesus' resurrection with a few pieces of money.

My beloved Christians,
The faithful women and the Roman guards witnessed the same incidents with their own eyes but showed quite different reactions.
Before Jesus Christ who not only died on the cross in redemption of us but also received the suffering of the hell, and he ro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s he said, we must obey his word all the time, and we must always respect God. At the same time, by living our joyful life in faith,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the blessed people of the Lor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사명자대회 발대식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VIP 초청 새생명축제 : 10월 23일(금) 오전 11시, 10월 25일(주) I II III부 예배, 찬양예배 시 특별새벽기도회 : 11월 16일(월)~21일(토)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사명자대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운동인 2015년 사명자대회가 10월4일(주일)~11월22일(주일)까지 50일간 열린다.

사명자대회는 교회설립 50일전부터 기도로 주님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함을 사명으로 삼았다. 해마다 서울교회는 교회설립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사명자대회를 가짐으로써 교회설립 기념일인 11월 넷째주일을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계기로 삼고 있다.

서울교회는 국가와 민족,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2015년 사명자대회를 시작한다.

이번 사명자대회도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같이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51:3)말씀을 붙들고 진행된다.

50일동안 계속되는 자율기도회, 모든 성도가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다니엘기도, 다락방이 공동으로 하는 다락방기도에 동참함으로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란다.

특히 11월16일(월)~21일(토)까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주제 “아버지의 마음”으

로 박노철 담임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또한 5000명의VIP, 1000명의 방문자, 300명의 결신자를 품고 기도중에 있으며 Life5운동 전도전략 가운데 이번주는 나눔방문을 진행하며 전교인 1인 1명 전도, 노방전도, 축조전도에 동참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새생명 축제되길 바란다.

2015 사명자대회 조직

- 대 회 장 : 박노철 담임목사
- 지도교역자 : 장석남 목사 · 배경애 전도사
- 본 부 장 : 오광환 장로
- 차 장 : 신봉하 · 김상태
- 진행분과 : 송영준 / 임승한
- 전도분과 : 이만호 / 교구간사 선교회장 전도회장
- 기도분과 : 최원석 / 이길재 손용문 김승록 김경애 박종권
- 교육분과 : 김장섭 / 장윤기 윤동수 김도훈 김광태 김광욱 최승환 윤종택 임병권 강성은 강나훈 지성철 류기찬
- 홍보분과 : 홍창훈 / 유은경 신민규
- 재정분과 : 노창훈
- 안내분과 : 황병서 / 안내위원
- 봉사분과 : 이성애 / 제2권사회
- 차량분과 : 차도훈 / 차량부

종교개혁신학 국제학술대회

10월10일(토) 오전 9시 20분, 본당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회장 이종운 원로목사)에서 주최하는 종교개혁신학 국제학술대회가 10월10일(토) 오전 9시 20분 우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종교개혁신학과 신앙의 토대위에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는 매년 봄과 가을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회와 더불어 종교개혁신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이종운 원로목사의 주제강연이 있으며 국내외 저명한 신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교개혁신학 국제학술대회
[The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or Reformation Theology]

주제: "REFORMATION TODAY - 21세기 500 종교개혁의 의미"
일시: 2015년 10월 10일(토) 오전 9:20 - 오후 6:00
장소: 서울교회 (서울 연남동 성당로터리) 1층 대강당 / 전화: 02-559-1105 / 02-559-1106

시간	주제	강사
9:20-10:00	개회예배	이종운 목사, 박노철 목사, 장석남 목사, 배경애 전도사
10:00-11:30	SESSION1	1. 신학의 전통과 현대성 2. 신학의 방법론과 철학 3. 신학의 실천적 함의
11:30-1:00	SESSION2	1. 신학의 전통과 현대성 2. 신학의 방법론과 철학 3. 신학의 실천적 함의
1:00-2:00	SESSION3	1. 신학의 전통과 현대성 2. 신학의 방법론과 철학 3. 신학의 실천적 함의
2:00-3:30	SESSION4	1. 신학의 전통과 현대성 2. 신학의 방법론과 철학 3. 신학의 실천적 함의
3:30-5:00	SESSION5	1. 신학의 전통과 현대성 2. 신학의 방법론과 철학 3. 신학의 실천적 함의
5:10-6:00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	이종운 목사, 박노철 목사, 장석남 목사, 배경애 전도사

공동주최: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 한국개혁신학회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 11일(주) - 각 교회학교별 / 본선: 16일(금) 오후 7시 시상 및 발표: 10월 18일(주일) 찬양예배 시

2015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이 다음 주 10월 11일(주) 각 교회학교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범위는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3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은 성도의 영성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귀한 일이다. 대회 시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차근차근 암송하여 주제별로 선정된 이번 성경암송대회에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전하기 바란다. 본선은 10월 16일(금), 시상 및 발표는 18일 주일 찬양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87)

(문 187) 골로새서1:20 말씀은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을 가르친 것인가요?

(답)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자신이 화해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편 구원론자들(Universalists)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구원대상에 대한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문제들이 야기 될 것입니다.

첫째, 믿음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든 말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든 말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옥의 존재가 무의미해 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들이 고통 받을 지옥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골1:20에서 말씀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모든 사람의 궁극적 구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 될 경우 죄를 회개치 않은 이들이 가는 지옥은 마치 로마 카톨릭교회가 주장하는 '연옥'과 같이 임시적인 징벌의 처소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천국으로 모두 이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궁극적으로 선악의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와 거역한 자의 마지막 구별도 사라질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성경도 계시도 하나님의 은혜도 용서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만민구원설을 주장하는 이들에 의하면 악한 자들이 지옥에서 잠시 동안 고통을 받는 동안 성도로 변화를 받는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상은 매우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 감옥에서도 체벌을 가할 경우 죄수들이 회개하기보다는 더욱 강박해져간다는 것은 모를 사람이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체험과 감화 감동으로 중생하므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아는 이라면 이 같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받을 재앙에 대하여는 계16:8-10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옥의 무서운 고통이 있다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화해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므로 연옥설부터가 비성경적이지 만 연옥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계20:10과 21:8에는 불 못에 영원히 던지움을 받을 이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의 구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1:20 말씀은 하늘과 땅의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만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됨으로 형제간에 화목도 이루게 된 것입니다(빌2:10).

따라서 만민구원론은 성경을 바로 해석한 교리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 계속)

사명자대회를 시작하며

우리는 모두 사명자



오광환 장로
(사명자대회
위원장)

우리 서울교회는 25년전 또하나의 교회가 아닌 이웃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교회설립의 사명을 받고 50일 동안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준비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대 명령을 감당코자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교회 3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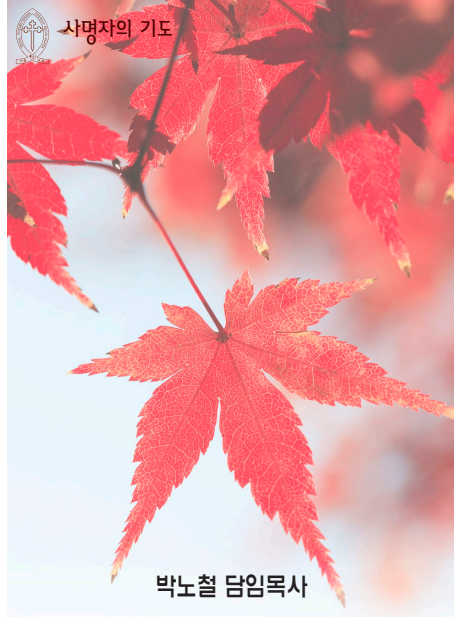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하시는데 예수님의 초청에 “그들이 그물과 배와 심지어 아버지(가족)까지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있는 ‘지금 이곳’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부름받은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이웃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자 대회는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성도가 시간 시간 공동기도제목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회입니다. 태신자를 품고 연속기도의 한축을 담당하고, 한편으로 성경말씀으로 무장하여 ‘LIFE 5 전도전략’에 따라 인사방문, 선물방문, 나눔방문, 소망방문으로 새생명들의 마음 문을 열고 10월 23일 25일 양일간 새생명 축제에 그들을 초청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혼구원의 결실을 맺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교회학교는 각 부서별로 잃은 양 찾기, 새친구 초청하기 등 다양한 자체프로그램으로 친구초청잔치를 벌이고, 70인전도대는 청실 아파트 재건축 입주에 맞추어 온 교회와 함께 새생명 전도와 영혼구원을 위해 땀과 정성을 쏟아 결실의 계절에 많은 영혼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는 담임목사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란 주제의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아름다운 서울교회의 전통을 이어 가는 2015 사명자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자의 기도

박노철 담임목사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지옥이 있음도 알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힘과 지혜와 위로의 원천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기에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은 그 구원과 은혜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믿는다 하면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 주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증오해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번 계절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전도와 기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앵두 같은 입술로!



안재희 집사
(9교구)

요즘 부쩍 말이 늘어 대화가 통하는 서진이와 앳아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 참 감사한 마음과 함께 행복함이 밀려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귀여운 목소리로 조잘조잘 말하는 입을 보면 뽀뽀를 마구마구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라며 또 종알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이의 얘기를 들은 어머니와 저는 네 돌도 안 지난 아이 입에서 배운 내용이라고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내용에 너무 황당해 했습니다. 도화지 같은 아이의 머리에 무엇을 넣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아부 예배 찬양 가사 중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지고 무얼 할까...입 열어 입을 열어 찬송찬송 해 야지' 라는 찬양처럼 서진이의 앵두같은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말씀을 암송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은 어린이 집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배우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집에 오면 어린이 집에서 배웠던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제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화 속에서 '육개장'이란 단어가 귀에 들렸는지 저에게 "엄마 육개장은 귀신 쫓을 때 먹는 음식인데..."

오늘도 서진이는 성경을 암송한다고 앵두같은 입술을 오뎅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쟁가리가 되고 ♪"



사명자대회

전하고 기도하니!



정미애 권사 (11교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구원이지만 전도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70인 전도대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보다 친정식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2009년 수원에서 이 곳 대치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서울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 해 사명자대회 기간 중 기도 하면서 누군가 들어야 할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생각이 들었고, 친정식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전도대에 합류해야 하겠다는 결단을 기도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난 저는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정식구들은 제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유교사상이 강한 불교 가정인지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친정식구들께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4남 1녀의 고명딸이 예수를 믿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친정 부모님께는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친정식구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숙제요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서울교회에 온 첫 해 사명자 대회 기간에 부모님과 남동생들의 이름을 대신자 카드에 적고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며 그 후 5년간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남을 전도하는 것 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마음 한 켠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오래 인내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멀리 사시다보니 집안행사 때나 명절날,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서 친정식구들에게 예수쟁이 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는 친정 부모님 때문에 애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친정아버지께서 폐렴으로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셔서 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셔야 할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날, 저는 그 날도 아버지를 찾아 뵈고 복음을 전했고 아버지는 그 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던지 온 천하를 다 얻은 듯 했고, 내 마음이 이리 기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친정식구들 중 불교심이 가장 강하셔서 예수 믿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시던 아버지께서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신겁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영접이후로, 오랜 기간 작정하고 기도했던 셋째 동생과 막내 동생이 얼마 전 서울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반 교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복음을 전하며 때를 기다렸던 기쁨의 단을 이제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구원을 향해 전해 보세요. 전하는 입술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올해도 저는 친정어머니와 둘째 동생을 대신자로 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 특별 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할렐루야찬양대(대장: 오광환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고성진 집사의 지휘로 “믿음의 유산 (Joseph Martin 편곡)”, “우리에게도 (Don Besig 곡)”, G.F.Handel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중 “죽임당하신 어린양, 아멘”을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 피아니스트 김양언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 그리고 오보이스트 박준서 선생이 함께 연주한다.

B.M.W. 운동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0월4일(주일) 섬김의교회에서 주일설교를 한다. 10월6일(화) Save N.K 월요기도회 200회 설교 한다.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정착한기업 만들기 창립대회준비위원회를 소집한다. 10월9일(금) 종교개혁500주년국제학술대회 외국인 강사와 국내7개 신학회회장단 환영만찬을 주관한다. 10월 10일(토) 종교개혁500주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주제강연을 한다.

■ 임용 : 12교구 김동욱 성도 (김성준 집사, 김선영 권사 장남) 명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 득남: 5교구 박승기 집사, 김택정 집사 가정

■ 금주의 식사 제공 : 서준권 목사 유정민 성도 가정 (예성이 돌을 맞아 감사드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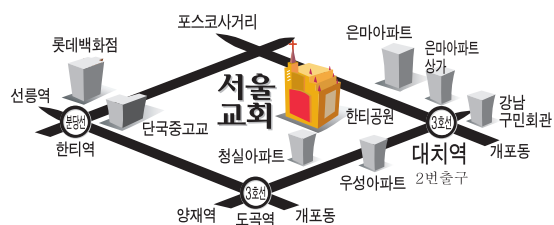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5년 사명자대회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로 영혼 구원의 대잔치가 되도록
2.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이상 전도대상자(VIP)를 정하고 10월 23일, 25일에 있을 VIP 초대 새생명축제로 인도할 수 있도록
3. 래미안대치팰리스 입주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